

하나님의 말씀

빛이 이 땅으로 임했다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8151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하다.....	4
4524 세상은 묶인 가운데 있다. (성탄절에 준 계시).....	5
7780 빛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6
7136 원죄와 구속사역의 의미.....	8
8706 원죄를 사함 받는 것은 단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9
8707 성탄절을 맞아.....	11
빛 가운데 살라.....	14
5592 나는 세상의 빛이고, 빛은 진리이다.....	14
6434 높은 곳에서 오는 빛. 하나님의 말씀.....	15
7254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사랑이다.....	16
7863 영원한 원래의 빛. 예수 그리스도.....	17
하나님의 구세주를 기억하라.....	20
642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	20
7156 구속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하라.....	21
8102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다.....	23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 자신을 구속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	26
4997 죽음이 극복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	26
5106 자신의 구원.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7
5478 그리스도의 피. 죄짐.....	28
6804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	29
6994 사랑의 불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31
7066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	32
7442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34
7688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35
7861 자유의지로 구속사역을 영접해야만 한다.....	36
8983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아래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38
예수를 따르라.....	40
5101 하나님의 다리인 예수 그리스도.....	40
5157 구원의 길. 사랑의 길. 예수 그리스도.....	41
6363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42
6677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43

7874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는 일.....	44
6721 구원. 주의 만찬.....	46
8704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	47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하다.

B.D. No. 8151

1962년 4월 15일

영적인 빛이 어둠 가운데로 비추어 나간다. 내 말은 이 땅 아래로 울려 퍼지고 이 땅에 퍼져 있는 밤을 물리치게 한다. 왜냐면 내 말은 위로부터 비추어지는 어두운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빛이기 때문이다. 내 말은 영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의 증거이다.

만약에 빛이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심연에 삼키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심연의 가장자리로 향하고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 대적자에 의해서 항상 더욱 심연으로 이끌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빛의 비추임 받아야만 한다. 인류는 이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볼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이 길은 단지 빛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운명에 맡긴다고 믿어서는 안 되고 그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과정과 성공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나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원하는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소경임을 항상 심연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지속적인 위험이 바로 너희가 거하고 있는 어둠이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누구였는지 다시 어떤 사람이 되어 하는지 전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인 빛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단지 나만이 줄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이 지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두워진 상태는 너희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너희 안에서 진정한 빛이고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면, 이 빛을 얻을 수 있지만 스스로 이 빛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 빛을 다시 선물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랑이 없이 살고 이로써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 나는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빛을 선물해 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비록 너희가 스스로 진리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해 줘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들 향한 내 사랑은 아주 크다. 이때가 종말의 때이다. 너희가 심연으로 빠질 위험이 더 크게 되었다. 너희를 이런 깊은 곳으로 추락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준다. 너희 스스로 진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벌어들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선물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 대적자가 너희를 빠지게 한 영적인 눈먼 상태에 있는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저항을 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빛을 비추어 준다. 너희가 이 빛을 영접하면, 너희 주변의 어두움은 떠나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 주는 너희가 가야 할 길인 사랑의 길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말을 이 땅에 보낸다. 나는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너희가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켜야 한다고 그러면 너희는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밤의 어두움을 벗어나서 낮의 밝음으로 들어선다면, 너희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너희가 전적으로 어두운 영역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하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이 빛을 자유의지로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이 빛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빛의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단지 작은 빛을 보내줄 수 있으면, 너희에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만큼의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면, 너희들 스스로 이미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면서 이 빛의 비추임을 크게 만들 것이다. 이런 소원을 진실로 내가 들어줄 것이다. 단지 작은 빛 줄기가 너희 안에 들어야 한다. 빛의 주는 행복이 너희가 사랑을 행하면서 스스로 너희 안에서 빛을 불타오르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랑을 빛의 근원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제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데 도달했으면, 어두움의 밤은 물러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빛이 밝게 밤 가운데 비추어서 밤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영의 태양은 떠오를 것이고 모든 위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빛을 위로부터 이 땅에 보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단지 비추임을 주지 않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역광만이 종종 비추이고 있기 때문이다. 빛은 영원한 빛과 능력의 근원인 나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빛은 만약에 단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으면, 진실로 모든 것을 꿰뚫을 것이다.

진리 안에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빛은 비추어 질 것이다. 그는 내 말을 통해 진리에 합당한 광범위한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지식이 그에게 한때 그가 누구였는지 그가 다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음을 줄 것이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진지하게 추구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이제 밝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확실하게 목표로 인도하는 완성에 이르게 하는 나와 연합이 되게 하는 길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은 묶인 가운데 있다. (성탄절에 준 계시)

B.D. No. 4524

1948년 12월 26일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면, 이 땅의 너희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다시 말해 너희에게 심장의 평안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기 위해 임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탄의 묶임 아래 있어,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하고, 사탄에게

맞서 싸우면서, 자신을 사탄의 악에 넘겨지게 하였고, 그는 사탄의 싸움에 대응하였고, 그는 사탄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모든 권세로 사탄에게 저항하기 원했고, 그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원했다. 왜냐면 세상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묶인 가운데 있다.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헛되게 드린 것이 된다. 위험이 다시 아주 크다. 사탄은 다시 분노하고, 큰 권세를 행사한다. 사람들은 나로부터 다시 멀어지고,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다시 높은 곳에서 사탄의 무기인, 거짓과 오류가 나타나는 곳에 진리를 전하면서, 사탄에 대항하여 싸운다.

세상은 사슬에 묶여 있다. 사슬처럼 인류는 영의 어두움에 묶여 있다. 인류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왜냐면 인류가 영원한 진리의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인류는 어두움의 권세자의 사슬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류에게 다시 구세주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되어야만 한다. 나는 대적자의 권세를 빼앗아야만 하고, 사슬을 풀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다시 평화가 지배하게 하기 위해, 나의 대적자를 포로로 잡아야만 한다. 내 안의 평안은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 왜냐면 내가 사슬을 끊고,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땅에 다시 임하고, 나는 구름을 타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사람들의 원수이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자를 묶기 전에, 그들을 평안의 나라로 인도한다. 그럼 가장 큰 위험 속에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때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였다. 이처럼 그는 현재에도 그가 자신을 구속하게 한 사람들 가운데 영으로 거한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사탄을 대항하는 싸움에 나설 것이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아멘

빛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B.D. No. 7780

1960년 12월 24일

세상은 묶인 가운데 있다. 이 땅의 과정을 가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루시퍼의 세상에서 사는 어떤 사람도 사탄의 사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사탄은 사람들을 묶고 있고 그는 사람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는 단지 영원한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부터 그를 생성한 나를 향한 미움과 저항만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묶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묶임을 풀고 사슬을 끊고 타락한 자들이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하게 돕고 사람들을 그의 권세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왔다.

내가 이 땅에 임한 것은 가장 큰 공황의 역사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불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길을 가리켜 주기 위해 나 자신이 그들을 공황히 여기고 그들에게 빛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이런 타락한 존재들에게 어떤 작은 빛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빛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

영원한 빛이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기 위해 아기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아기 예수는 내 곁형체가 되었고 아기 예수는 내가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내 대적자와 공개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에게 돌아오려는 의지와 소원을 가진 혼들을 그로부터 얻기 위해 내가 사용한 인간적인 형체였다. 나는 이런 혼들을 위해 구매가격을 지불했고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희생했고 내 피로 내 대적자로부터 그들을 구매하여 자유롭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미 특별한 일이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내 곁형체로써 나 자신을 섬겨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죄악 된 인류가 내 충만한 빛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 자신을 가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아기 예수는 이미 특별한 빛을 발산했다. 그러나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빛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이로써 내 가까이에 거하는 일이 허용 된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누가 이런 내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었고 그들은 그들의 왕에게 드리듯이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경배드렸다. 왜냐면 그들의 단순한 혼이 나를 깨닫고 나에게 경배했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나는 일은 숨겨진 가운데 일어났다. 왜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발산 된 영의 충만함이 가장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내가 태어남으로 그들의 희망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몰랐다. 아기로부터 그들에게 내 사랑이 발산되었고 그들의 심장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거룩한 나타남에 사로잡혀 그들의 모든 성정이 예수에게 향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앞에 구유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로써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사랑이 깨어나게 하는 내 사명이 시작되었다.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살게 되었고 나는 모든 자연의 법칙에 순응했다. 목표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일인 이 땅의 과정을 나는 의식적으로 갔다. 한 동안 내 영이 역사하여 자신을 나타내었을 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우월함도 없었다. 왜냐면 나는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너희 사람들에게 과제를 준 것과 같이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모범이 되도록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육신을 영화시켜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야만 했다. 내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의 삶이 나에게 주었다. 내가 인간으로 내 삶을 살았다면, 너희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에 내 실제적인 가르치는 일을 하기 전의 기간 동안 내가 행해야만 하고 행했던 것처럼 내 모범을 따라야 하고 너희 인간적인 육체를 하나님의 영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 인간 예수는 자신을 가꾸어 내 거처로 섬겼고 그러므로 나는 인간 예수로써 충만한 영이었고 아버지 자신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으로 흐를 수 있는 영의 그릇으로 섬기려는 단지 진지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대적자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연결을 이루면, 나 자신이 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갔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여 그들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갈 수 있게 한다.

아멘

원죄와 구속사역의 의미.

B.D. No. 7136

1958년 6월 1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항상 또 다시 기억할 것이다. 나는 이 땅의 너희 사람들과 저세상의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모든 혼들에게 항상 또 다시 구속 역사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또는 너희가 아직 구속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에 관한 지식을 전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언젠가 축복에 도달하기 원하면, 깨달음이 없이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이 땅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친 인간 예수를 알지라도 너희가 인간 예수가 죄악 된 인류를 위해 실행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에게 "그가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했다." 라고 말하면, 그러나 너희가 연관관계를 찾지 못하면, 너희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은 너희에게 단지 말 자체로 남는다.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너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왜 인류가 죄악 되었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인 원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의 죄악이 원죄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 원죄는 크기면에서 사람들의 죄악성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죄값을 치루기 위해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이나 또는 저세상에서 언젠가 죄값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나 저세상에서 원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 원죄는 자신이 이미 온전하지 못하게 된 존재가 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온전한 가운데 있는 존재가 그에게 깨달음의 빛이 부족하지 않은 존재가 나를 능가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자신을 다스리게 만든 존재가 그러므로 그들의 빛과 능력의 충만함이 거만하게 만든 존재가 범했기 때문이다. 존재 자신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다.

왜냐면 이 죄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영원에 영원의 기간이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죄를 통해 존재들이 가장 깊고도 깊은 곳으로 타락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빛과 능력을 잃었다. 그들은 동시에 자신을 반대로 바꾸었다. 그들은 모든 신적인 성품을 잃은 대신에 모든 악한 성품과 충동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성분이 전적으로 굳어져서 그들의 존재를 더 이상 의식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내 대적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이런 굳어진 영적인 존재들을 형체 안으로 파문했다. 다시 말해 나는 존재를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입자들로 분해하여 이 입자들로 셀 수 없이 많은 창조의 작품을 생성시켰다.

창조의 작품들은 내 사랑과 권세와 지혜가 단지 이런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는 축복 되게 정함을 받았고 이 축복은 단지 나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은 실제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속죄하는 역사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의무의 단계에서 의지가 묶임을 받은 가운데 이뤄진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가 언젠가 다시 자유의지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갈망하는 상태에 도달해야만 한다.

이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러나 이런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다. 존재는 이 길이 십자가를 향한 길임을 알아야만 한다. 존재는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을 통해 가능함을 알아야만 한다. 그는 육체의 죽음 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실제 고향은 빛의 나라의 영접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야만 함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저세상에서도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아직 깊은 곳에서 고통 당하는 혼들에게 다가간다.

저세상에 있는 혼들도 내 구속사역을 알게 된다. 혼들은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한때 거부했던,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일을 통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었던 높은 온전한 정도에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구속사역의 이런 큰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 이름을 단지 높은 도덕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살았던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 땅에 거한 목적은 큰 의미가 있는 사명이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선명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이 사명을 헤아려 봐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지는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게 될지는 너희의 깨달음과 너희의 선한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멘

원죄를 사함 받는 것은 단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B.D. No. 8706

1963년 12월 23일

언젠가는 나에게 원죄가 처리돼야만 한다. 언젠가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깊은 것으로 향했던 죄를 지은 존재들이 절대로 다시 하나님 가까이에 나갈 수 없다. 어떤 죄도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고 남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죄의 속죄가 이루기까지 끝 없이 긴 시간이 가야만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일어났다.

왜냐하면 타락한 존재들의 끝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데 그들 죄의 결과를 짊어지는데 영원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남김 없이 죄를 사함 받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

왜냐면 원죄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항한 것이었기 때문에 존재에게 죄사함을 받을 더 이상 가망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서 그들 스스로 모든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죄를 사함 받는 것은 단지 사랑이 다시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는 반대의 것을 통해 다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랑이 더 이상 없었다.

한때 사랑을 대항해 죄를 지었다. 단지 하나님을 떠난 큰 죄보다 더 큰 사랑만이 속죄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때 타락했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전혀 사랑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으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깊은 곳으로부터 즉 깊은 곳에 처해 있는 이런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하나님께 귀환을 위한 목적으로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끝 없이 긴 과정을 거친 후에 아주 작은 사랑의 불씨가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인간의 상태에 비록 도달했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의지는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에 묶여 있고 이런 묶임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연약해 죄를 속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다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움이 주어져야만 했다. 하나님 편에 남은 존재 안의 충만한 사랑이 불행한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위해 속죄 역사를 행하게 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어두운 나라인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가장 큰 긍휼의 역사를 통해 의지를 강하게 하게 돕게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 그들 안의 사랑의 불씨에 양분을 제공할 수 있어 밝은 화염으로 불지 피울 수 있게 했다.

이 불은 다시 영원한 사랑의 불에게 향하고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죄짐이 한 존재에 의해 해결돼야만 했다. 이 존재의 사랑은 아주 강해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그는 빛의 나라에서 어두움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왔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항하는 싸움을 싸웠고 그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로 지불하고 혼들을 구매했고 인간 예수로써 십자가 죽음의 희생의 고통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 가려고 하지만 대적자를 떨쳐 버리기에는 혼자서는 연약한 모든 혼들을 위해 속죄의 값을 지불했다.

이로써 예수는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졌다. 그는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의 사랑은 아주 커서 영원한 사랑이 이를 족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큰 원죄를 사해 주었다. 예수에게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 가기 위해 자기에게 능력을 주기를 구하는 인간 예수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역사의 은혜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다시 영접한다.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환을 절대로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아주 큰 죄짐이 너희가 어떤 성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사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형성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한 빛의 존재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했다. 인간의 겉형체 안에 거하게 된 존재 안에 영원한 사랑 자신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이 혼과 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 혼은 충만하게 전적으로 비추임을 받았고 먼저 육체와 혼이 전적으로 영화가 된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

했다. 이 땅의 인간으로서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로써 예수 안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을 위해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아멘

성탄절을 맞아

B.D. No. 8707

1963년 12월 25일

감사와 기쁨 가운데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기념해야 한다. 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역사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너희를 위해 너희 들에게 길을 밝혀줄 빛이 임했고 너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은 희망이 없는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가 시작됐다.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의 타락한 형제들인 너희를 사랑하는 인간 예수가 영원 동안을 나와 떨어져서 깊은 불행 가운데 고통당하며 사는 내 자녀들을 나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길을 먼저 살았다. 한때 나로부터 비추임을 받은 나에게 복종하고 원래 창조 된 영들의 무리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나에게 남은 빛에서 온 혼이 예수 육신의 형체 안에 거했다. 아기 예수 안에 이 혼이 거하고 있다. 이미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기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적 위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럴지라도 인간 예수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의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아주 순수하고 전에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

이 예수 혼은 깨끗한 몸을 입어야만 했다. 왜냐면 나 스스로 그의 인간적인 형체 안에서 거하려고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의 신체는 순수하고 죄가 없어야 했고 비록 그가 그를 넘어뜨리려는 어두움의 존재로부터 계속하여 공격을 당하였지만 이에 대적하고 자신의 혼에 달라붙은 모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넘치는 사랑으로 구속하고 죄 없이 남게 되었다. 모든 유혹에 대항했다.

그가 물질적인 세상의 거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지 못한 요소들을 영화 시켰다. 그는 자신의 혼의 소원에 충실히 따랐다. 왜냐면 그는 사랑이 충만했고 이 사랑이 가장 큰 대적자를 비롯해 모든 것을 극복했다. 인간 예수는 먼저 자기 육체에 붙어 있는 모든 성숙하지 못한 요소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그가 모든 인류의 죄짐을 위해 실행하기 원하던 가장 큰 긍휼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

내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내 영은 그 안에 있었다. 왜냐면 세상적인 육체 안에 온전한 혼이 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혼은 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고 나는 그를 통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너희가 신비스러운 나라의 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 진실로 일어났다.

왜냐면 온전한 영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심장에 사랑이 충만하고 아기 예수 안에서 약속 된 메시아를 깨닫고 그에게 경배한 적은 사람만이 아기 예수의 관한 기적을 체험했다. 심장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는 단지 다른 아이들과 같은 한 아이로만 보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 밤에 일

어난 기적을 느끼고 그에게 왔고 그 아기 안에서 약속 된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경배했다. 이는 모든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임하고 이 아기 안에 거하시는 이런 기적은 절대로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이 이 땅의 임했다. 아기 예수는 사랑이 충만했다. 한때 타락했던 불행한 자들에 대한 큰 사랑이 그로 하여금 육신을 있게 했고 이 원죄는 사랑에 대적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만 사할 수 있는 이런 원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해 사랑에서 비롯도서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이 사역을 완성했다. 그는 이 땅의 어떤 사람이 전에 드렸던 것보다 또 앞으로 드릴 제물보다 가장 큰 제물을 드렸다. 그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인해 모든 빛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도 이를 버렸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 (1963년 12월 25일)

빛의 나라에서 온 존재인 예수는 자유의지로 자신을 드러서 이 사명을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와 살고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타락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나로부터 창조 되었고 루시퍼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수많은 영적인 존재를 데리고 깊은 곳으로 타락하였을 때 나에게 남은 모든 존재들은 사랑이 충만한 상태이다.

예수의 사랑은 아주 강해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영원한 사랑 자체인 나를 대적해 지은 측량할 수 없는 범죄를 나에게 속죄하려고 했다. 예수가 나에게 제안한 이 사랑 즉 사랑으로 드러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제물을 영접했다. 오직 사랑만이 원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의 존재가 육신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삶을 빛과 자유 함 가운데 있었던 존재에게는 하내 감옥과 같아서 혼이 아주 고통스럽게 느끼는 육신의 고통가운데 살았다. 그는 이 땅에 삶을 인간으로서 살아야만 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였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반적으로 있는 같은 연약함과 저항심과 싸워야만 했다. 왜냐면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을 통해 모든 연약함과 실수들을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내 대적자에게 속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았다. 빛의 나라에서 온 혼에게는 이것이 두 배나 힘든 일이었다.

어두운 영역에서 자신을 관찰시키고 자신을 무너트리려는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모든 육신안과 환경 속에서 영적인 못한 것들을 사랑으로 대했다. 그의 육체도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 강하게 공격을 당했지만 예수 혼은 이를 막지 안 했다. 왜냐면 그는 그의 지혜가운데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 구원받기를 원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은 항상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도울 준비되어 있다. 그의 혼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다.

그는 자위하며 빛 가운데 살며 사랑가운데 즉 최고의 복된 상태에만 있었다가 이제는 육체 안에 묶여서 어두움 가운데 사랑이 없는 환경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고통의 상태였다. 이를 통해 그는 이웃의 많은 죄를 속죄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자신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원죄를 위해 희생함으로 큰 속죄제사를 드렸다. 너희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공훈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결과를 의식하면서 이런 크기의 고통을 짊어질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의 마지막을 항상 눈앞에 두고서 그 안에서 기쁨이 나올 수 없었다. 그는 인간으로서 이런 모든 것을

느끼고 그가 앞두고 있는 일이 불러 일으키는 두려움에 상태를 체험했고 그런 마지막까지 이 고통을 견디었다. 나에게 대한 그리고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증가했고 이 사랑이 금홍의 역사를 실행하게 그에게 힘을 주었다.

나 자신이 그를 전적으로 비출 수 가 있었다. 나 자신이 근원적 존재로서 그 안에서 있었고 그래서 인류를 위해 죄를 용서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 예수가 십자가 상에서 완성한 것과 같이 단지 사랑을 통해 올바른 죄 사함을 베풀 수 있는 큰 원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을 수 있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 예수에게 준 것은 사랑이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고, 빛은 진리이다.

B.D. No. 5592

1953년 2월 1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곳에 단지 빛을 비출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다. 이 말을 심장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곧 빛의 광선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빛에 도달하기 위해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빛은 진리이고, 진리는 나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빛을 밝혀주도록 자신 안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일은 사랑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안에서 산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나 없이는 어둠 속에 빠져 살고, 너희가 다른 곳에서 빛을 찾을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사랑을 통해 불을 밝히지 않고,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자체가 사랑인 나를 너희에게 이끌지 않으면, 너희는 사랑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무질서 하게 될 수 있고, 너희 심장의 내면도 무질서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너희 안에 사랑이 거할 수 없게 된다. 사랑은 영원한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한 너희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너희 안에 어떤 선명하지 못함과 질문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심장 안으로 영접을 받을 때 너희 안이 빛이 있게 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영원의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빛이나 어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너희가 빛이 세상에 임하게 한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너희는 나를 얻으려고 시도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통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불러내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내 사랑의 계명을 내 뜻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내 뜻을 따르게 될 것이고, 나와 내 사랑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삶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발산하는 빛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것이고, 빛을 구할 것이고,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랑을 통하는 길 외에는 진리에 도달하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사실이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랑이 없는 곳에 틀림 없이 있어야만 하는 오류를 너희에게 설명해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사랑은 식었고, 나 자신이 거할 수 없는 곳인 내 밖에서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의 사랑 없음 자체로 인해 물리침을 받은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사람의 이성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되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나 빛이 꺼진 곳에 사랑이 없고, 영의 어둠이 있고, 오류와 무지와 속는 일과 영적인 오만함이 있다. 왜냐면 그런 곳을 어둠의

권세자가 다스리기 때문이다. 어두움의 권세자는 빛을 물리치기를 원하고 이로써 또한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한 빛인 분을 물리치기 원한다.

아멘

높은 곳에서 오는 빛. 하나님의 말씀.

B.D. No. 6434

1955년 12월 25일

세상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고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추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 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 빛이 없으면 그들은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빛이 없으면 그들은 탈출할 길을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또 다시 자신의 빛을 이 땅으로 비추고 그 자신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임한다. 그 자신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임한다. 그는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빛을 부어줄 수 있는 인간의 형체를 찾는다. 이로써 빛이 어두운 밤을 비추게 한다. 그는 자원하여 그를 섬기려는 사람들 안에 영으로 육신을 입는다.

이런 일은 마찬가지로 이 땅으로 임하는 일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동일한 어두움이 이 땅에 퍼져 있고 그러므로 그가 다시 빛을 이 땅에 비추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 사람들은 위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의 시작점에 서있었고 이제는 길의 끝에 도달했다. 그러나 큰 성장을 이루지 못했고 곧 이 길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길이 어두움을 벗어나게 했는가?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직 비추는 빛을 따를 것인가? 그들이 빛 가운데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고 너무 늦기 전에 이 길을 갈 것인가?

어두움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들을 종식시킬 정도로 그들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이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굴복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아주 밝게 빛을 비추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위험을 깨달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기 원하고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자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아주 밝게 비추어 사람이 단지 자신의 눈을 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향한 자신의 의지를 통해 빛 자체를 어둡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다시 하나님 자신에 의해 밝혀졌고 이 땅을 비춘다. 왜냐면 어두운 이 땅에 큰 위험이 있고 한때 영원한 빛 자신이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처럼 다시 단지 사랑이 위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했다. 인간 예수는 빛의 혼이었고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자신이 그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올바른 신체적인 걸형체가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말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하고 자원하여 듣는 사람들의 심장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춘다.

그는 자신의 말씀을 이 땅으로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자신을 비추게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그들 앞에 이제 위로 인도하는 길이 밝고 분명하게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두운 곳이 없게 된다. 그는 단

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되고 그러면 어두움이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어두움의 세력의 권세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사람들을 비추는 빛은 항상 영원히 같은 빛인 십자가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일로 나타나는 권세와 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으로 임한 빛이다. 그가 스스로 이 땅으로 임했고 높은 곳에서 온 말씀이 그를 선포하기 때문에 단지 그로부터 빛이 발산 된다. 그가 없이는 이 땅과 또한 영의 나라가 어두움이 속에 있게 된다. 왜냐면 그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오는 빛이기 때문이다. 이 빛은 항상 무한의 세계를 비출 것이고 이 빛은 또한 다시 이 땅을 비추어 모든 사람이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찾게 하고 그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사랑이다.

B.D. No. 7254

1959년 1월 13일

너희가 내 말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너희는 내가 단지 너희에게 나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만을 요구함을 항상 더욱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아직 창조물의 형체 안에서 묶임을 받고 있거나 또는 이미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가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너희의 모든 성장 과정은 단지 사랑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항상 섬기는 사랑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모든 과정을 쉽게 해주고 너희가 원래 초기에 온전했던 것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항상 사랑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전 내 의지를 깨닫게 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깊은 지혜들을 알게 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내 구원계획을 알려주면, 나는 항상 사랑을 강조할 것이고 너희가 단지 스스로 사랑의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게 보일 것이다. 너희는 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사랑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내 이런 계명을 성취시키려는 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면, 너희는 빛이 충만한 가운데 깨달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면 나를 통해 너희가 처음으로 내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스스로 내 뜻에 대한 입장을 정할 수 있다. 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말이다.

너희의 성품에 따라 너희는 이 말을 해주는 말로 느끼거나 또는 헛된 소리처럼 너희 귀를 스쳐 지나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내가 해주는 말로 심장으로 영접하게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의지는 자유하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내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뜻을 따를지 다시 말해 내가 내 말을 통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할 지를 결정한다.

너희가 행하면, 내 말이 곧 너희 안에서 밝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왜 내 뜻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왜냐면 너희 스스로 행동을 통해 사랑이 긍정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증거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써 너희는 사랑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너희의 성장 과정은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너희가 단지 사랑을 통해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항상 또 다시 내 복음을 설교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항상 또 다시 내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한다.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내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의지가 먼저 이런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일해야만 한다. 왜냐면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일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한다. 사람은 항상 새롭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능력을 가질 것이다. 그는 빛을 받을 것이다. 이로써 서 그에게는 그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것도 선명하지 못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내 말씀을 위해 나설 것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이웃들이 성장하게 돕기 원하는 일은 사랑의 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제 선명하게 깨달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쉬지 않고 추구할 것이다. 내 말은 선포되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랑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은 내 말을 통해 사랑을 행하게 자극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창조의 작품의 섬기는 과제를 깨달아야 한다. 이로써 그들은 이제 모든 창조의 작품들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들 스스로 이 땅에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로 사랑으로 섬기는 마지막 과제를 받기 전에 이 길을 갔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 사람들은 모든 것에 도달한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단지 섬기는 사랑을 통해 전혀 사랑이 없고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 자체인 나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나에게 돌아오는 단 한가지의 길이 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십자가를 통한 목표로 향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생성되어 나온 너희 모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사랑의 길이다.

아멘

영원한 원래의 빛. 예수 그리스도.

B.D. No. 7863

1961년 4월 2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전할 수 있게 하면, 너희가 심장 안에서 내가 직접 하는 말로 내 말을 영접하면,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 다. 이 말씀이 너희가 축복되기 위해 필요한 진리를 너희에게 전해야 한다. 너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이 영의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질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를 가르칠 수 없는 동안에는 너희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어떤 깨달음도 없다. 너희에게 내적인 빛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원래의

빛이다.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오는 모든 존재들은 이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축복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빛을 무한 가운데로 발산한다.

나는 나에게 대적하지 않는 모든 존재에게 충만하게 비춘다. 나는 내 빛을 이 땅에 비춘다. 나는 그들이 육신을 입기 시작할 때에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나는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진리에 합당한 지식으로 인도한다.

이 지식은 그들에게 영원한 빛으로부터 나오는 다시 영원한 빛으로 돌아가는 빛을 의미한다. 이 지식은 아주 광범위하다. 왜냐면 이 지식은 내 모든 구원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창조의 역사와 창조 된 존재들의 타락과 그들의 나에게 귀환을 포함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전하는 일은 너희가 한때 거절했던, 이런 거절로 인해 영이 가장 어둡게 되었던, 빛을 다시 너희에게 선물하는 일은 너희를 향한 내 아주 큰 사랑의 행위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히 이런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희에게 너희의 이 땅의 길을 밝혀주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것을 알게 되면, 너희가 한번 인간으로 이 땅에 과정을 가야만 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너희의 원죄를 알게 되면, 너희는 다른 모든 지식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나 자신이 영의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전할 수 있으면, 너희는 이미 나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너희를 한때 깊은 곳으로 이끈 자와 결별했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서 연합을 이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 너희는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벗어 났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나에게 향했고 너희의 의지는 다시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한 나에게 향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신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되게 도왔기 때문이다.

그가 없이는 사탄의 종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절대로 가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너희에게 내 사랑을 통해 비추는 가장 강한 빛이다. 왜냐면 이 빛은 너희의 축복을 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빛으로 충만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인간 예수의 큰 공훈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가장 어두운 영으로 살 것이고 다른 빛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의 빛을 밝혀 주기 위해 그들에게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을 비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원래의 빛인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 모두는 너희의 이 땅의 과정에서 갈림길에 도착한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사람들을 위해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한 원죄를 사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

내 아주 큰 사랑이 너희 모두에게 그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수와 그의 사명을 설명해주려고 시도하면서 나는 너희 모두에게 빛을 줄 것이

다. 그러나 너희 자신 안에서 먼저 이 빛이 양분을 받아 밝은 화염으로 타올라야만 한다. 너희 자신이 자유의지로 그에게 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귀환은 보장 된다.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모든 지식이 부족하다. 내 대적자가 너희를 빛으로부터 물러나게 하면, 대적자가 사랑은 영원으로부터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영의 어두움이 임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게 너희에게 자극할 것이다. 나는 자극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동안에는 양심의 음성을 통해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내 영의 불씨가 먼저 아주 나지막하게 자신을 나타내 너희에게 작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의지가 결정한다.

너희의 의지가 나를 위한 결정을 하면, 내 빛이 그 안을 더욱 밝게 밝혀줄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깨닫는다. 그는 더 이상 어두움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 빛이 그를 높은 곳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는 빛 가운데 길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한다. 그는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

B.D. No. 6427

1955년 12월 16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싸움에서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부름을 통해 그와 그의 구속 역사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너희는 예수 안에 내가 육신을 입은 일을 믿어야 하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 다시 깨어난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사랑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은 대적자와 싸울 의지가 없다. 왜냐면 그가 대적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또한 약한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약한 의지가 그가 사랑을 행하고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하고 자신의 뜻을 강하게 해주도록 그에게 구해야 한다. 그는 먼저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는 곧 그의 의지가 강해지는 일을 체험할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점점 더 많이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그의 인간 예수의 신성에 대한 믿음과 그의 구속사역과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생명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 내 이름을 대변할 것이다.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비록 처음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적인 확신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린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지식일지라도 이런 사람에 대한 생각은 이미 그와 연결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고 이런 연결이 언젠가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준다. 그가 그의 이 땅의 삶을 생각하고 선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생각이 그를 더 이상 놓아주지 않는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그를 자신에게 묶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안다. 그가 영원한 그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와 긴밀한 연결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그에게 직접 다가 갈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예수를 통해 이런 연결을 일구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에게 순수하게 역사적인 일로 말해줘야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역사하여 그가 인간 예수가 그런 삶을 살고 행한 이유를 찾으려고 시도하게 하고 그러면 그는 그의 삶과 죽음이 영적인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는 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를 얻는 일이 가능하고 이제 그에게 가르침이 진리에 합당하게 제공 된다면, 그는 더 이상 가르침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려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직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일은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 전적으로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그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그에게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지식을 얻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그에게 예수의 이 땅의 삶에 관한 지식이 제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의 이 땅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시도한다면, 내가 진실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씀이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으로 선포되고 예수 자신이 온 세상에 선포 된다면, 이런 일은 항상 축복된 일이다. 이로써 사람이 진리와 역사적 사실과 그가 예수의 사명을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에 도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이성적인 믿음이 또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이 비로소 너희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믿고 내 구속사역을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빛과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너희에게 연다. 너희 모두는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에 도달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아멘

구속역사의 중요성을 생각하라.

B.D. No. 7156

1958년 6월 30일

너희 사람들은 희귀하게 내 십자가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나 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영의 세계를 위해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구속받지 못한 존재들을 위해 결정적이다. 이전에 흔들은 이 땅을 떠난 후에 희망이 없이 저세상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흔들이 그들이 빛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막는 짐을 가지고 갔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의 경건함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믿고 이런 믿음을 저세상으로까지 가지고 간 사람들만이 저세상에서 모든 갈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최종적인 자유를 줄 하나님의 구세주를 기다렸다.

내 구속사역을 통해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어떤 혼도 희망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 필요 없다. 단지 나와 내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들의 주인에 대해 나를 부르는 모든 혼은 이 땅에서 이미 빛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부름을 의식적으로 위로 보내기 위해 사람은 구속사역을 자신 안에서 생각해야만 한다. 그는 내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는 자주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로 향하게 해야만 한다. 그는 인간 예수가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견뎌야 했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상상해보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그는 예수 안의 나 자신과 긴밀하게 연결을 이뤄야만 하고 항상 또 다시 내가 그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을 눈앞에 똑똑히 봐야만 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또는 단지 말을 통해 그의 죽은 믿음만을 표현하며 무관심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이 잘못을 십자가로 가져 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에게 공황을 구하고 너희 혼의 원수에 대항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면, 너희 모든 사람은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부름을 너희에게 요구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의 부름이 없이 너희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너희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세주의 도움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1958년 6월 30일) 너희가 한 사람이 너희를 영원한 자유 없음으로부터 너희를 돕기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이런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상태는 너희가 인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모든 충만함으로 함께한 인간 예수를 생각할 때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에게 너희가 자유에 도달하게 너희를 도와 주기를 구하기까지 너희의 운명이다. 그러나 도움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길을 택하려는 너희의 의지를 표현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도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머무느냐? 내 구속사역은 너희에게 의미 없는 역사이고 오히려 너희가 자원하여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문제이다. 내 구속사역은 의심스러운 의문이거나 또는 너희가 깊은 의미를 두지 않는 전설이다. 그러나 내 구속사역은 가장 중요한 역사이다. 단지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행한 역사 가운데 이런 큰 공황의 역사에 깊이 빠지게 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는다.

그는 목표에 도달한다. 왜냐면 그에게 죄와 죽음과 자유 없음과 어두움으로부터 구속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 자신을 드러야만 한다. 너희는 그에게 그가 너희를 영접해주시기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에게 너희의 연약함과 약점을 고백하고 이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를 그에게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삶에 그가 개입하게 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가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너희가 날마다 매시간마다 너희의 큰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내가 인간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든 아주 큰 사랑을 생각하면, 너희는 구속사역의 모든 깊이를 깨달을 수 있고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것이다.

너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왜 그들이 이 땅의 길을 가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이를 알려주면, 그들은 믿지 않으며 이를 영접하는 일을 거부한다. 그들은 언젠가 자유 없음과 능력 없음의 상태에서 자유와 빛과 능력의 상태로 바꾸기 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함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언젠가 그들의 어둡고 능력 없는 상태를 깨닫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죽음 후에 계속되는 삶을 믿지 않고 그들의 나에 대한 이 땅의 삶을 사용한 것에 관한 책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편에서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의미와 구속사역의 의미와 이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선명한 지식을 주었다. 이 지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지식은 항상 또 다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어질 것이다. 왜

냐면 내 대적자의 역사로 무지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항상 드러나고 이 가르침이 변질되면, 이로써 더 이상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를 믿는 일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사람들이 너희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함을 선명하게 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모든 믿음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 인간 예수의 사명과 인간 예수가 완성한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돌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의심스럽게 보이는 것을 영접하라고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자유의지로 영접하고 유일하게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너희의 원죄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너희를 한때 생성되어 나오게 한 나에게 도달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설명한다.

아멘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다.

B.D. No. 8102

1962년 2월 15일

너희 사람들은 영의 나라로 인도하는 다리에 들어서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만 한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가 다시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영의 나라로 가는 다리 위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양육을 위해 전해진 가르침을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생각으로 각각의 가르침에 대한 너희 입장을 정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진실로 이 땅으로부터 영의 나라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이 선명할 것이다. 이제 너희의 의지가 하나님의 대한 생각이 너희에게 깊은 감동을 줄지를 결정할 것이다. 왜냐면 빛의 세계 편에서 이런 생각이 너희에게 주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써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 너희는 단지 이 생각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항상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항상 다시 떠오르는 생각으로 구속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하는 생각으로 그의 영향을 느끼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너희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1962년 2월 15일)

이런 질문은 진실로 답변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것이 이 땅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더 이상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나에게 자유의지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것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된 나 자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자신 스스로 예수와 예수의 구속사역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복음을 전하게 구속사역을 알려주게 모든 곳에서 예수가 사람들에게 어두움의 나라로부터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지식을 전하게 내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낸다.

두 나라는 서로 분리가 되어있다. 두 나라 사이에 사람들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놓여 있다. 사람들의 큰 위험을 깨달은 가운데 인간 예수가 자신의 구속사역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큰 원죄를 사해주는 것을 통해 이 다리를 놓았다.

그는 너희들 모두가 한때 생성되어 나오게 한 나에게 아버지에게 인도하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깊은 골짜기를 존재하게 되고 너희는 영원히 어두운 영역에 머문다. 왜냐면 예수가 없이는 벗어나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에게 그의 큰 공훈의 역사에 대해 그의 끝없는 사랑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사랑인 나 자신을 인간의 예수가 자기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한 것이다. 예수가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만약에 인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예수의 공훈의 역사를 영접하고 예수에게 죄사함을 구하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의 나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예수의 비참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예수에게 능력을 준 사랑이 예수 안에 없었다면 예수는 이렇게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알려 줘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동안에는 그러므로 그들의 원죄의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어떠한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축복될 수 없음을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들에게 빛의 나라가 닫혀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한다. 왜냐면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나를 자유의지로 다시 추구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인 나 자신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내 영접을 다시 받기 위해 예수 안의 나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의 나라로 인도하는 다리로 들어서야만 한다.

왜냐면 영의 나라는 단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가 놓은 다리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그들의 진정한 고향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구속사역에 관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그의 사명에 관해 설명 받기를 진지하게 갈망해야 한다. 그에 관한 진리에 합당한 깨달음에 도달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진실로 너희에게 깨달음이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축복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축복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제자들은 보낸다. 내 제자들은 그에 관해 증거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을 사랑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완성한 가장 큰 공훈의 역사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 자신을 구속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

죽음이 극복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

B.D. No. 4997

1950년 11월 9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박힐 때 사탄의 사슬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고,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면, 사탄은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권세를 잃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의 피를 통해 예수는 전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 힘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생성한 영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나의 대적자로부터 구매했다. 그러므로 인류가 처한 상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인류에게 대적자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인류는 그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자신의 피로 구매 댓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설명을 통해 너희가 희망이 없게 사탄의 권세에 넘겨지지 않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면, 너희 모두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일이 그를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 사탄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 더 이상 사람의 의지에 강요할 권세가 없고, 모든 면에서 사람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강제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권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이다.

죽음은 극복되었다. 죽음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이고 멸망과 어두움의 상태이다. 죽음은 극복되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을 정복했고, 자신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즉 예수가 얻은 은혜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위해 죽었기를 원하고, 예수가 또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렸기를 원한다. 사탄은 아직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고 사탄에게 대항할 도움을 구할 때까지는 그런 사람에 대해 사탄의 권세가 아직 무너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인 예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었다면, 예수는 나와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사랑은 예수에게 나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묶임을 받은 한 혼을 구하는 일이라도 대적자로서 사탄에 대항해 싸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진지하게 보호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 사탄은 단지 자원하여 사탄에게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한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이 사탄의 힘보다 천 배나 더 강하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이 위험에 처한 가운데 단지 자신의 눈을 예수에게 향하는 모든 묶임을 받은 존재에게 임한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다.

사탄은 실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나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사탄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고 자신의 양들을 원수로부터 지키고, 예수에게 대적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그의 양무리에 속한다. 예수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러므로 한 양이 심장으로 예수를 고백한다면, 그는 양들 중 하나라도 대적자의 손아귀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무한히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나와 하나가 되었고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권세와 힘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을 나에게 희생제사로 드렸다. 너희가 너희의 원수에 대항하여 도움을 청하면, 그는 또한 너희의 부름을 듣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모든 혼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을 것이다. 너희의 의지가 단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 그에게 향해야만 한다.

아멘

자신의 구원.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B.D. No. 5106

1951년 4월 18일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결과로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영의 존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일을 의미한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죄악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다.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구원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 대항해 물리쳤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아주 강했고, 사탄에게 저항했고, 자신 안의 하나님의 일부인 사랑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대적자를 무기력하게 만들 정도가 되게 했다. 왜냐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온 힘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해 의지가 연약해졌고, 하나님의 대적자보다 열등하고, 단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이 전혀 없는 자의 유산으로 인해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의 피로 모든 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구매 가격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돕는 분으로 얻으면, 그는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제 사람이 자신을 해방시키기를 원하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묶어 둘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의 구원 역사는 자유의지의 역사이다. 그러나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자유한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은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자유롭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사탄이 아직 그를 통제하고 있고, 그의 권세는 단지 예수에 의해 꺾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기 위해 예수 뒤에서 서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자신을 아주 잘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먼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의지를 가져

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세주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을지라도, 그를 위해 구속역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얻은 은혜를 활용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구속역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1951년 4월 18일)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탄에게 신실하게 머물 수 있다.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의 창조에 참여했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의 자신의 뜻대로 힘을 사용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주 큰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존재 안에 하나님께 저항하려는 의지를 넣었다. 구속사역은 모든 존재를 위해 이뤄졌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강제로 구원받는 존재는 없고 존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구속역사가 존재를 위해 헛되게 이뤄진 것이 된다. 왜냐하면 존재가 아직 계속하여 사탄을 자신의 주님으로 깨닫고, 그의 권세를 벗어나려는 소원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 죄짐.

B.D. No. 5478

1952년 9월 2일

오 땅의 내 자녀들아, 나는 내 피를 흘렸고, 너희를 위해 가장 어려운 길을 갔다. 왜냐하면 너희가 혼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너희가 벗어나도록 내가 돕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희생 제사가 받아들여졌고, 이 희생 제사는 너희를 위해 드려졌다. 그러므로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간청했 일과 이를 위해 내가 희생한 일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너희가 처한 상태에서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내 시대의 이 땅이 사람들이 단지 궁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서 이 땅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음을 알았고, 내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역사에 포함시켰고, 내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구매했고, 그들은 이제 이 땅의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 희생의 죽음은 가장 큰 긍휼의 역사였고, 나는 전적인 의식과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없이는 내가 견딜 수 없었을 고통의 상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가 인류의 끔찍한 비참함을 긍휼히 여겼고, 인류의 끔찍한 비참함이 내가 인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나는 실제 이런 내 구속역사가 내 성품이 완전히 신적이게 되는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영광을 목표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해 고통을 받고 축복되지 못한 영적인 존재를 향한 사랑으로 행했다.

사랑이 아주 권세있게 나를 충만하게 채워, 내가 사랑으로부터 긍휼의 역사를 실행할 힘을 얻었고, 인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가운데 죽었다. 나는 불행한 형제들을 위해 십

자가에서 내 목숨을 바쳤다. 이런 형제들은 한때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들에게 정해진 길을 떠났다. 나는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는 축복을 알았고, 축복되지 못한 타락한 존재를 긍휼히 여겼다. 그러나 나는 또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존재를 하나님께 되돌려주기를 원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아주 컸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존재에 대한 내 사랑도 아주 컸다. 유일하게 이런 사랑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 희생을 받아들였고, 내 사랑은 타락한 존재들의 죄짐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이런 죄짐은 사랑없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단지 사랑이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속죄를 받아들였다.

나는 너희 사람들을 위해 내 피를 흘렸고, 그러므로 너희가 행한 일을 속죄했고, 너희 죄를 내가 짊어지고 속죄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역할을 해야만 하고, 자원하여 십자가의 내 죽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은혜의 역사가 너희를 위해 드러졌기를 원해야만 하고, 나와 내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자원하여 속하면서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이런 인정과 너희의 의지가 없다면, 너희는 죄짐을 지고 있고, 너희를 타락하게 만든 자의 사슬에 갇혀 있게 된다.

내가 실제 너희 모두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의 의지가 비로소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의지와는 반대로 너희가 자유의지로 저지른 죄로부터 구속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뒤야만 하고, 나를 인정해야만 하고, 나를 불러야만 한다. 너희는 아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죄를 짊어지고 내 피로 해결하기를 요청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 사랑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

B.D. No. 6804

1957년 4월 11일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내 피를 흘렸고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고통을 당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어떤 사람도 내 구속사역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죄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죄짐은 그들에게 빛의 나라의 문이 닫히게 한다. 그러므로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축복되지 못하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구속사역을 활용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자유이다. 왜냐면 내 긍휼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람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이 땅과 영의 나라에서 아직 죄짐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무도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고백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내 구속사역을 고백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므

로 사람의 자유의지가 내 십자가의 희생제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구세주 세상의 구원자인 나를 향해 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비롯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역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보물이 제공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전혀 더 자세히 관찰하게 전혀 자극해주지 않는 이 은혜를 지나치고 활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무관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그들의 육체의 죽음 후에 어떠한 견딜 수 없는 운명을 선택하였는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남김 없는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구속받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인간 예수로서 고난과 고통과 부끄럽고 쓰라린 일과 대적을 당하고 미움이 가득한 행동을 나 자신이 감당한 일은 단지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행한 일이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너희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행했고 너희를 위해 너희의 죄로 인한 효과를 너희가 피하도록 고통 당하기 원했다. 나는 이 죄를 속죄하기 원했다. 다시 말해 너희의 죄를 사해주기를 원했다. 고통과 고난은 너희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정도였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은 초인간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실제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으로서 만약에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았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끝없이 크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

너희 사람들은 단지 내 큰 사랑을 한번 상상해보고 인간 예수가 너희 때문에 견딘 일을 생각해보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너희는 단지 그의 십자가에 과정의 고통을 그의 대적자를 통한 고문과 그의 초 인간적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 자신이 너희의 큰 죄 때문에 받아야만 했던,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받은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너희를 감싸야만 한다. 너희의 사랑이 이제 너희를 그에게 인도해야만 한다. 너희는 크게 후회하며 너희의 죄짐을 그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렸기를 구하면서 이제 그에게 넘겨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해 완성한 구속사역을 너희를 향한 내 큰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쉽게 너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너희가 단지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 원하고 너희가 이런 큰 사랑의 행동을 너희를 위해 완성한 분을 생각하고 너희 자신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면, 너희가 그에게 능력을 제공해주기를 구하고 너희가 단지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의탁하면, 너희가 얼마나 확실하게 너희의 육체의 죽음 후에 빛의 나라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요 구원자로 믿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아멘

어느 누구도 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영의 능력이 그를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으면, 내 일부분인 그 안에 영의 불씨가 내면으로부터 그에게 지시하고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항상 또 다시 도움을 청하여 그가 동시에 나와 함께 그를 영원으로 부터 묶고 있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혼이 자유를 갖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자유롭게 해주는 일은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완성한 구속사역을 통해 가능하다.

내 대적자로부터 너희가 구속을 받기 위해 이제 단지 너희의 고유의 의지 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자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잠자고 있는 영의 능력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안의 영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영은 너희들 인도하고 너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인도한다. 왜냐면 내가 이런 목적으로 내 사랑의 영의 가장 작은 불씨를 너희 안에 넣어 주어 구속사역이 성공하게 했고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헛되지 않게 했다. 단지 한 가지 사랑의 행위가 너희 안에 영을 이미 깨어나게 한다.

영은 계속하여 사랑을 행하게 너희에게 자극하면서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면 너희는 쉬지 않고 너희를 나에게 이끄는 영의 능력을 감지하고 느끼게 돼야만 한다. 너희가 단지 영의 능력을 활용하면,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구속을 받는 일이 너희에게 성공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내가 진실로 거부하지 않을 능력을 나 자신에게 구하기 때문이다. 모든 나와 연결은 기도를 통한 것이나 또는 사람을 행하는 일을 통한 것이나 너희에게 항상 나로부터 나온 능력을 줄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항상 더 많이 나에게 머물 것이다. 너희의 위를 향한 추구는 분명할 것이다.

너희 모두가 영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너희 안에 나로부터 나온 이런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단지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르기 원하기만 하면 된다. 이 불씨가 단지 너희에게 표현하기 원하면, 너희는 이에 저항하지만 않으면 된다.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 심장의 작은 자극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 자극을 따라야 한다.

왜냐면 영의 불씨는 너희에게 항상 사랑을 행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자극을 따르면, 영의 능력이 항상 더욱 확산될 것이다. 너희는 빛의 생각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영의 나라와 연결을 이루려는 강한 자극을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갈망은 줄어들고 영적인 갈망은 더 많이 우선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항상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인 나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은 높은 곳의 나에게 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을 통해 너희를 인도한다. 왜냐면 너희 혼자서는 어떤 것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고 너희 의지를 실행하는 일은 예수의 구속사역이 이룬 일

이다. 왜냐면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너희 사람들을 위해 먼저 강한 의지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너희에게 구매해주었다.

이 모든 은혜는 너희가 도움이 없이는 저항하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의 연락함 가운데 너희가 내 대적자에게 대항하게 돕는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은 사람 안의 영이 쉽게 자유롭게 될 수 있게 역사하고 단지 아주 작은 사랑하려는 의지가 사람 안의 영이 역사하게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수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에 있게 고백할수록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할수록 사람 안의 영이 더욱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구속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왜냐면 내 영의 능력이 이제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시 빛과 능력이 없는 너희 이웃들의 축복을 위해 빛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이 너희가 자유롭게 되게 도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너희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원수의 일부분인 동안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의지가 아직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향하지 않은 동안에는 너희가 원수에게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세주는 너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도움을 청할 때 원수를 너희로부터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안에 나 자신의 일부분인 영의 불씨는 너희가 영의 불씨가 일하게 허용하면, 너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도움을 청하게 재촉할 것이다. 영의 불씨는 심장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고 사랑을 행하게 자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리고 영의 불씨에게 어떠한 강요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항상 도와줄 준비되어 있다. 왜냐면 연약하고 구속받지 못한 존재들을 향한 내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언젠가 이런 존재들을 나를 위해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

B.D. No. 7066

1958년 3월 14일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구원을 구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해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와 그의 공훈의 역사를 믿어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했다. 나 자신이 그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 나는 그를 통해 기적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세상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자신을 사랑으로 만들어 나 자신에게 합당한 곁형체가 되어 나를 전적으로 모두 자신안에 받아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용서하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름 예수는 영원한 너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때 너희를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아직 부족한 축복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 이름 안에 모여야 하고 나 자신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생성되게 한 그러므로 너희를 생성되게 한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너희는 이제 한때 너희를 위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비로소 갈 수 있게 해준 구세주를 인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이 길을 통해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러면 비로소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 너희 혼이 이제 비로소 전에 가졌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에 도움을 줘야만 하고 도움이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구원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필요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함을 헤아려 보거나 또는 증명하기 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 주변을 관찰하고 창조물에 대해 창조물의 생성에 대해 생각하면,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에 관해 말하고 있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고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이름을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 구속사역의 의미를 먼저 체험해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린 시대가 되었고 전적으로 구속을 받은 혼들이 첫 번째로 아버지께 돌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많은 혼들이 축복의 문 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많은 혼들이 이제 비로소 축복된 영의 존재로써 그들이 원래 초기에 생성되어 나온 곳에 거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원죄를 해결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나라의 문이다. 그의 이름이 빛의 영역의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진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 안에 있고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로써 나를 부르는 것이다. 나는 진실로 그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 자신에게 너희 안건을 아뢰면, 너희는 잘못 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의 짓누르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사랑이 다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내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성취시켜줄 것이다. 나는 항상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비로소 자유의지로 너희를 온전한 존재로 바꾸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귀환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너희는 비로소 "피조물"에서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자유의지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강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비로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들어선다. 왜냐면 이 길 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인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B.D. No. 7442

1959년 10월 31일

너희가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진지하게 받기 원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너희 모두는 너희의 죄에 대한 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로 가지고 간 죄짐은 엄청나게 컸다. 왜냐면 내가 짊어진 죄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짐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인류가 범한 원죄였고 이 땅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행한 모든 죄였다.

나는 모든 죄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비록 죄가 아주 크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이 죄를 짊어졌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심장을 다시 주기를 원했고 그러면 너희가 단지 유일하게 깨끗한 심장 안에서 나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얼굴을 대면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너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기 원했다. 나는 너희를 짓누르는 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나로부터 떨어져 있게 만드는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구속사역을 통해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구속받으려는 의지를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나에게 구해야 한다. 왜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가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죄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항상 구속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다가와 너희의 구속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내 대적자가 영원한 기간 동안 너희를 묶어 두고 있는 연약함과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두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에게 충만해지고 너희 안의 사랑이 불이 붙어 밝은 화염으로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혀 사랑이 없는 자가 너희를 더 이상 자신의 권세 아래 두지 못한다. 자신이 사랑인 분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 심장 안에 자신의 빛을 비춘다. 왜냐면 심장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었고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너희 심장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너희는 그의 뜻에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에게 성전으로 준비한 너희 심장 안에서 거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피할 수 없게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하고 받았어야만 한다. 진지하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일이 너희에게 전적인 용서를 보장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짐을 진 심장이 자신을 부르는 모든 부름을 듣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너희 요구를 성취시키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내 심장으로 끌어 드린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내 피를 흘린 구속받은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의 죄의 고백을 원한다. 고백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자신이 연약하고 불행한 피조물임을 알기 때문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속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자유가 없이 영의 어두움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아주 커서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원했고 자신 안에 거하는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그들에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죄를 해결하기 원했다. 그는 그의 사랑이 아주 커서 모든 사람이 단지 아버지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축복에 도달하게 돕기 원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게 했다. 죄는 나와 존재들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했다. 이 간격은 극복돼야만 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속사역과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간격을 극복했다.

그는 사람들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도달하게 도왔고 그는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이 축복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너희가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너희는 깨끗함을 받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향하는 길과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보다 먼저 간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길을 열어준 것이다. 축복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아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B.D. No. 7688

1960년 9월 2일

너희가 원죄의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축복될 수 없음을 너희에게 말해줘야 한다. 이 땅의 너희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원죄의 죄짐을 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실제 걸음으로 보기에 공의롭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믿는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 만약에 너희가 이런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의 삶을 떠나면, 너희에게 축복의 문은 닫힐 것이다.

너희는 빛의 나라에 아직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너희는 아직 단지 예수 그리스도 만이 그가 너희를 위해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죄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가 이런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구속사역은 너희에게 소용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세주인 그를 믿는 단지 적은 수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설명 받기 원한다. 그들은 이런 모든 믿음의 가르침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살거나 믿음의 가르침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 상에서 죽음으로 끝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음을 믿어야만 한다.

그들이 이를 믿을 수 없으면, 그들은 이에 관한 진리를 체험해보려고 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진리가 전해지면, 진리를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축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일은 축복받을 것이다.

왜냐면 종말이 가깝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만이 종말의 끔찍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사람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구하고 새로운 파문을 받는 끔찍한 운명을 피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문을 열어 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에 알려져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단지 전설적인 인물로 여기고 있고 인간 예수가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이웃에게 돕기 위해 행한 일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장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돼야만 한다.

사람들은 구속사역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진리를 체험해야만 한다. 구속사역의 영적인 이유에 대해 원죄와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에 관해 설명을 받아야 한다. 단지 진리만이 사람들이 생명력이 있게 그를 믿는 믿음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웃에게 전해져야 한다.

왜냐면 종말의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 땅의 창조물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받는 운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아직 행해야 한다.

아멘

자유의지로 구속사역을 영접해야만 한다.

B.D. No. 7861

1961년 3월 30일

너희는 묶임을 받고 있다. 나는 이를 긍휼히 여긴다. 너희가 내 구속을 받지 못한 동안에 너희는 아직 항상 내 대적자의 종 노릇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에게 능력과 빛이 부족하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그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너희가

자유의지로 내 사랑의 힘의 비추임을 받는 일을 막으려고 하고 너희가 연약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내 사랑은 내 피조물인 너희에게 향해 있다. 이 사랑은 너희를 깊은 곳까지 따라 갔다. 내 사랑은 너희를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 올리기를 원한다. 내 사랑은 너희가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하게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너희를 돕기 원한다. 내 사랑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를 너희의 신적인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린 사람들의 밖에 있다. 나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연약하고 불행하게 만든 너희의 죄짐을 용서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대적자에게 속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내 구속을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는 스스로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너희는 심장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오고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내 대적자에게 향했던 너희의 의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나에게 다가오는 일을 통해 나에게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연약한 상태를 벗어날 것이다.

너희는 다시 빛과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더욱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나는 단지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와 하나가 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 연합이 너희에게 넘치는 축복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한다. 너희가 불행을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축복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나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내 구속사역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질 지는 너희 자신의 의지가 항상 결정적인 요소로 남는다. 너희가 내 십자가 아래를 향해 다가오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죄짐이 계속 너희에게 남는다. 너희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고 이 죄짐이 너희를 짓누른다. 죄짐이 너희를 깊은 곳에 가둔다.

너희는 죄짐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 그러면 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를 위해 헛된 죽음이었다. 너희가 스스로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는 일을 거부한다. 너희는 영원히 너희의 죄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죄짐을 저세상에 나라로 가지고 갈 것이다.

단지 너희가 이 땅에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피할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분이 저세상에서도 너희로부터 죄짐을 넘겨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가 모든 공홀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너희의 죄를 짊어진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는 의뢰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불행과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 끝없는 사랑이 위험 가운데 있는 너희를 돕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거한 나 자신에게 너희를 의탁하고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너희가 축복되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함을 믿으라. 너희가 현재 상태로는 축복되지 못함을 깨닫고 너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고 내 은혜와 긍휼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러므로 너희가 나 자신에게 의뢰를 해야만 함을 깨달으라. 왜냐면 내가 너희의 의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생각이 혼돈이 된 가운데 나를 떠났던 너희의 의지가 스스로 나에게 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를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다시 너희에게 구매해주기 위해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 너희가 스스로 내가 너희를 그의 권세로부터 구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가 너희를 구속하게 하면, 너희가 십자가 아래로 와서 그 곳에 너희의 죄짐을 내려 놓으면, 너희에 대한 권세가 그에게 없다.

내 끝없는 사랑은 너희로부터 죄짐을 넘겨받을 것이다. 내 끝없는 사랑이 너희에게 빛의 나라의 문을 열어 줄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아래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B.D. No. 8983

1965년 5월 26일

너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자주 말해줘도 충분할 수 없다. 나도 어느 누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로부터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인간 예수가 죄짐을 위해 속죄한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전에는 예수가 단지 너희를 위해 열 수 있는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구속사역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고 말해줘야만 한다. 왜냐면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이 아주 약하고 사람들이 항상 구속사역을 사람이 믿게 만들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전설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중요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임했고 또한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갔고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장 쓰라린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이 사명을 완성했고 그의 십자가 아래 서고 구속받은 무리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그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혼들을 위해 빛의 나라의 문을 열었다. 왜냐면 구속역사와 그의 은혜를 받아드리려는 자유의지가 비로소 너희를 묶고 있는 자가 채운 너희의 사슬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때 자발적으로 그를 따랐고 그로 인해 나를 대항해 죄를 지었다.

더 이상의 증거를 너희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없다. 너희는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나에게 속죄를 드리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항상 또 다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영을 통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바로 이런 사람 안의 영의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역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고 인간이 아직 원죄의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묻혀 있던 인간 안의 능력들이 다시 발산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의 역사는 항상 영원히 일어날 것이다.

인간 예수가 원죄 때문에 이룬 큰 공훈의 역사에 대해 사람들은 항상 영원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너희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이고 사랑이 인간 예수를 이끌어 그가 큰 고통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사랑이고 사랑이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를 채울 수 있었고 이로써 사랑 자신이 구속 역사를 성취시켰고 인간 예수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 있게 하는 내 겉형체였다. 그러나 그는 이제 나와 연합된 내 모든 존재를 위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머물기 위해 자신의 몸을 유지했다.

축복된 영의 나라의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고 왜 원죄가 너희를 나와 영원히 분리시켰는지를 너희가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내 공의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의 희생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 외에는 원죄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때 자발적으로 떠나 모든 생명의 원수이고 너희가 죽음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를 따라 깊은 곳으로 갔던 너희가 비로소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는 자유하고 너희는 또한 다시 축복되고 영원히 축복되게 머물 수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가는 길을 택할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서 의지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대적자도 또한 너희를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정할 수 없고 너희가 스스로 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의 고난의 길과 그의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너희 자신이 이런 속죄 역사의 원인이었다는 의식이 깨어나야 하고 이제 그의 십자가 아래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자발적으로 그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내 끝없는 사랑이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인간 예수 안에 거했던 내 끝없는 사랑이 너희의 사슬을 풀어주고 너희가 다시 내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게 하고 빛과 축복의 내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을 너희를 위해 열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다리인 예수 그리스도.

B.D. No. 5101

1951년 4월 7일

너희 모두는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를 건너야만 한다. 왜냐면 이 다리 외에는 나에게 다가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이 다리를 지었다. 그는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무한히 넓은 간격을 보았고, 너희 사람들이 이 간격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고, 너희가 절대로 나에게 도달할 수 없고, 그러므로 너희가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너희가 영원히 나로부터 멀어진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너희와 나 사이의 간격을 줄였다. 그는 간격 위에 다리를 세웠고, 나를 갈망하는 가운데 이 다리를 건너려는 모든 사람이 이제 건널 수 있게 되었다. 너희 모두에게 단지 하나의 길이 있고, 이 길을 예수가 너희를 앞서 갔다. 이 길은 나와 긴밀하게 연합하는 길이고, 사랑을 통해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길이다.

너희 인간이 나와 연결을 이룰 수 있는 다리가 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내 근처에서 추방당하지 않게 되었고, 너희는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갈 수 있다. 예수는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었고, 너희가 나와 연합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살아야만 하는 삶의 모범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너희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간격의 가장자리에 서있고,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넓은 간격이 끝나는 곳으로 너희의 눈을 향하게 하면, 너희는 먼저 단지 짧지만 힘든 길을 갈 수 있기 위한 힘을 요청해야만 한다. 즉 너희가 스스로 힘을 얻지 못하면, 너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생각으로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힘을 주기를 구하거나 또는 사랑을 행함으로 힘을 얻어야만 한다. 내 사랑은 절대로 너희가 힘이 없이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단지 받기를 원하면, 너희에게 절대로 은혜가 부족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 예수가 자신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심장 안의 가장 작은 간청을 듣고, 나에게 드리는 짧고 긴밀한 기도가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런 기도를 통해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 간격을 극복하려는 너희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면, 나는 항상 너희를 도울 것이다. 왜냐면 나도 아직 멀리 있는 너희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죄가 있고,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를 떠났다는 이유로 나는 너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너희를 향해 내 손을 펼치고,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단지 내 손을 잡기 만하면 된다.

다리는 실제 좁고 돌이 많고, 위를 향해 이어지는 길이지만 걷기가 쉽지는 않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길을 가게 하면,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로 택하고 그를 따라가면,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너희에게 성장하는 일이 쉽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모든 짐을 짊어지도록 도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사랑과 기도로 연합을 이룬다면, 나 자신이 너희를 향해 마중 나간다. 나 자신이

내 자녀들을 다리를 통해 본향의 아버지의 집의 나에게 데려오고,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창조한 존재를 향한 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의 길. 사랑의 길. 예수 그리스도.

B.D. No. 5157

1951년 6월 23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은 길이고, 이 땅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전능한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닦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한 인간 예수가 걸은 길이다. 이 사명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왜냐면 그가 인간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같은 대적자의 세력들과 싸워야만 했고, 올바른 무기를 사용하여 대적자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그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동안에 나타났지만, 그가 이런 힘을 얻기 위해 인간으로서 이런 싸움에 성공적으로 싸워야만 했다. 이로써 인간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또한 자신이 갔던 사랑의 길을 보여주었다. 이런 사랑의 길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했고 이로써 모든 풍성한 빛과 능력을 소유하게 했다.

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의 모든 추구는 자신이 깨달은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일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에게 충만했고,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했다. 왜냐면 사랑으로 충만한 심장은 모든 것을 그의 사랑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으로 충만한 심장은 사랑과 반대되는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를 쓰러뜨리기 원하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가 사용한 무기였다. 왜냐면 사랑은 힘의 원천이고 이로써 절대로 패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사랑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원수에 대항해 싸웠고 그러므로 승리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사랑에 저항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은 원초적인 힘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보다 강하고 또한 사랑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이기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사랑의 길을 갔고, 이 길이 곧바로 하나님께 인도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가 홀로 유일한 길이고 혼의 원수는 이 길을 가지 않고,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가운데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왜냐면 안전한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사랑의 길을 동행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다시 타락하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호한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동시에 그와 함께 길을 가고, 그는 또한 그의 목표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대적자와 싸웠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원의 길을 가는 가운데 그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자와 싸우기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인 사랑의 무기를 사용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왜냐면 사람은 사랑을 통해 혼의 원수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사랑을 통해 혼의 원수에 대한 권세를 얻

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받고, 사랑을 통해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 자신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혼은 한때 하나님의 대적자가 원인이 되어 자신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통해 붙은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의 혼은 이제 영원한 사랑과 다시 하나가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혼을 원래의 힘의 원천 가까이로 가게 했기 때문이다. 혼은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간 것이다. 왜냐면 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혼에게 보여준 올바른 길인 구원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B.D. No. 6363

1955년 9월 23일

너희 사람들이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죄와 정욕과 모든 종류의 부덕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고 온전하게 되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로써 너희가 그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음을 증명하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돕는다. 너희에게 싸워야 할 일이 있고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너희는 단지 그에게 도움을 청하라. 왜냐면 그 자신이 인간 예수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갔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는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자신의 은혜의 보물로부터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힘을 너희에게 제공한다.

너희는 그에게 향하는 길을 헛되게 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단지 도움받기 원하면, 너희는 확실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그와 연결을 이루고 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다른 어떤 사람도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유일하게 그가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또한 돕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 자신이 너희를 끌어내리려는 모든 사슬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만 하면, 그가 그의 나라에서 너희를 영접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가졌던 온전함에 다시 도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원래 초기에 축복되었던 것처럼 다시 축복되도록 하기 위해 나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의 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는 은혜의 선물이 부족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 혼자서는 더 이상 빛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는 이런 제사가 헛되게 드린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희생제사의 은혜에 누리기를 원하고 사람들 모두가 그가 자신을 희생한 목적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그에게 다가가야만 하고 너희의 위험 가운데서 너희를 그에게 맡겨야만 하고 그의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그의 임재를 깨달아야 하고 단지 생각으로 그를 너희에게 부르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는 너희 곁에서 너희의 모든 길을 함께 갈 것이다.

그와 생각으로 연결을 이루는 일이 너희에게 그의 임재를 보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까이에 있다면, 그에게 형제에게 말하듯이 말하고 너희를 들어내고 너희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라. 그러나 비록 너희가 세상의 곤경을 위해 전적인 지원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구하는 것이 주로 영적인 종류가 되게 하라. 그러나 먼저 혼의 상태를 생각하라. 너희가 혼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그가 너희를 모든 사슬로부터, 너희를 그와 분리시키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구하라.

마치 너희의 형제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너희 가장 비밀스러운 실수와 죄를 발견해내는데 주저하지 말라.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는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도울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를 믿고 그의 구속 사역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예수의 구속 사역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실수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왜냐면 그에게 어떤 능력도 없고 또한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착수하기 위한 의지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의탁하기 전에는 그는 어떤 것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만 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는 비로소 구원을 받은 후에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 비로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B.D. No. 6677

1956년 10월 25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자신의 역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해주려고 시도했다. 그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원하면, 자신을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고 그들 자신이 진리를 영접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이 길이라고 선언했고 그러므로 그는 이웃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요청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사랑과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그가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세주를 피해갈 수 없다. 모든 인간은 그를 깨달아야만 하고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

예수는 또한 자신을 진리로 표현했고 이 말을 통해 자신의 말이 영원한 진리이고 자신이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진리의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육체가 영원한 신성을 모시고 있는 자신에 대해 증거했다. 예수는 더 나아가 자신을 생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힘과 빛 자체이고 모든 온전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빛과 힘으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다. 자유롭게 빛과 힘을 가진 상태에 도달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도 인간 예수가 말한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말했고 그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오실 분을 알렸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이 땅으로 임했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생명에 도달하려면, 그들에게 길을 보여줘야만 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어두움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해줘야만 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큰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아직 진리와 생명을 확실하게 얻는 올바른 길로 들어서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어두움 속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진리에 합당한 생각과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은 절대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의 구속사역이 아직 모호한 개념이고 아직 내면으로부터 예수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과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에게 진리와 생명이 없고 그들은 잘못 된 길에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예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예수의 말씀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인 오류와 죽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도록 주어졌고 무지와 빛이 없는 상태에서 밝은 진리의 빛에 도달하도록 주어졌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길이라고 부른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보여줬다. 그를 붙잡고 그를 부르고 그가 어두운 이 땅의 골짜기에 있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죽음의 어두움 속으로 가라 앉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음성으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부르고 그의 길은 안전하게 목표로 인도한다. 사람은 빛과 힘을 가진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절대로 죽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는 일.

B.D. No. 7874

1961년 4월 16일

이 땅에서 나와 같이 살려고 노력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복종하는 가운데 견디고 자신 안의 사랑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내 올바른 제자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의 혼은 성장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단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권면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이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진실로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복종하며 견디어 냈다. 그는 어두움에 대항해 싸웠다. 다시 말해 그는 모든 곳에서 질서를 다시 세우고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영의 어두움 가운데

데 거하게 됐는지 이런 어두움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빛을 전해주려고 시도했다. 그는 의식하는 가운데 고난과 사랑의 길을 갔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형성하여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했다. 너희 모두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사랑과 고난을 통해 너희를 형성하여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 너희는 인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던 삶을 따라 살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나와 다시 하나가 되려는 너희의 의지가 필요하다. 단지 사랑이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고난은 많은 성숙하지 못한 입자들을 담고 있는 너희의 혼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너희 안의 영의 갈망을 따르는 육체는 영화 된다. 육체는 혼과 같이 성장해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정화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한다. 이런 정화되는 목적을 위해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한다. 너희가 나를 모범으로 삼으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전적으로 영화가 되어 나와 하나가 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한 사람이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일이 너희의 능력과 힘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따를 수 없다는 핑계를 항상 댈 것이다.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간 길은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너희에게 불가능 한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최악 된 사람들이 실행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성향과 형편에 내가 처해 보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넘어서는 성장을 한다.

왜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어두움과 싸움에서 내 대적자에 의한 모든 시험에서 모든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넘치는 능력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로부터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사랑은 능력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먼저 사랑을 설교해야만 했고 너희를 깊은 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너희에게 대적자로부터 자유를 주는 올바른 삶의 방식의 모범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했다.

왜냐면 사랑이 대적자를 패배시키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너희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때 불순물로 꽂 차 있던 너희 혼이 밝고 선명하게 되어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의 혼이 아직 자신의 성품을 반대로 바꾼 자의, 그러므로 진실로 악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의, 영역에 거하며 너희가 나를 떠나 자유의지를 그를 깊은 곳까지 따라 갔을 때 너희 성품이 그의 성품과 같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혼의 입자들이 창조물의 과정을 통해 인간의 혼으로 혼의 입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훨씬 더 순수해졌지만 그러나 아직 많은 버려야 할 불순물들을 가지고 있다. 버리는 일은 단지 사랑과 고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인정하고 너희의 죄짐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너희 죄의 용서를 받는 일은 너희에게 확실하다.

이는 너희가 이 땅을 떠나면, 빛의 나라의 문에 열릴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비추는 빛의 정도는 아주 서로 다르다. 빛이 너희 혼에 전적으로 모두 비추일 수 있으면, 빛이 분해 돼야만 하는 불순물을 만나지 못하면, 너희는 넘치게 축복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미,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너희 혼이 밝게 되고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의 모든 고난에 복종하고 인내하면, 견뎌야 한다. 너희는 항상 고난이 너희의 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함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모든 고난을 벗어 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항상 „아버지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왜냐면 내가 왜 너희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지 내가 왜 „나를 따르라.“고 말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항상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훨씬 더 어렵고 고난이 충만한 길을 간 것을 생각하면, 너희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또는 허용하는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


왜냐면 너희의 이 땅의 삶 동안 짊어지게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이고 항상 단지 너희의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 주의 만찬.

B.D. No. 6721

1956년 12월 24일

 든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고 나 자신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에게 갈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아직 나에게 심장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의 내면이 빛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한 빛으로서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의 문을 두드린다. 나에게 문을 여는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 그와 성찬을 나누고 그는 나와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 그러나 누가 자원하여 자신의 심장의 문을 나에게 여느냐? 내가 내 손에서 내어줄 수 있는 선물을 누가 감사하게 받아드리느냐? 누가 너희의 혼을 강하게 해주는 양식이 되도록 나 자신이 준비한 양식과 음료를 통해 자신을 쾌활하게 하느냐?

나는 대부분 잠긴 문 앞에 도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비록 그들의 혼이 굶주리고 피폐하고 죄짐이 그들을 연약하게 하고 묵임을 받게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구원도 줄 수 없다. 왜냐면 구원은 나 자신을 심장 안으로 영접하려는 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가 생명력이 있게 나를 믿으면, 그는 나에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는 그의 심장의 거처를 나를 맞이하기 위해 장식을 한다. 그는 나를 그의 손님이 되게 하고 그가 또한 내 손님이 되어 내가 이제 그에게 그의 구원을 위해 성찬을 베풀 수 있게 된다.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믿는 믿음이 또한 그의 구원을 보장하고 그를 혼의 고난에서 해방시킨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믿음을 희귀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혼은 항상 해결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이 땅으로 임할지라도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피조물을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면 나는 영

접받기 보다 더 많은 거부를 받는다.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임함으로 동행하는 빛을 보지 못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눈을 닫고 그들에게 빛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밝은 빛을 피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귀중한 양식을 제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굶주림도 느끼지 못하고 갈증도 느끼지 못한다. 나는 그들의 혼으로부터 사슬을 제거 해주기를 원하고 그들을 그들의 속박에서 구원해주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고 고난과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자유를 갈망하지 않고 비록 그들의 혼이 그들의 혼의 고통 가운데 시달릴지라도 그들은 자원하여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머문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고 새로운 구원시대가 시작이 되고 내가 약속 한대로 나 자신이 새로운 구원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으로 임한다.

내가 재림하는 일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이전에 나를 영접한 사람들을 내 나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그들의 귀를 닫은 채로 머문 사람들을 땅에 남겨 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로 남겨둘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다시 이 땅의 창조물 안으로 파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영원한 기간 동안 묶임을 받게 된다. 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었고 구원자요 구세주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제 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 자녀들을 위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돌볼 것이다. 내 약속이 성취되는 새 땅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새 땅에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상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빛과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이제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그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 단지 평화가 있게 된다.

아멘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

B.D. No. 8704

1963년 12월 20일

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할 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했다. 나는 현재도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왜냐면 그들이 진실로 그들의 심장에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 단지 나만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그들의 심장에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임재를 느끼고 자신이 축복되고 안전한 것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고 막을 내 사랑과 권세를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내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긴밀하게 연합이 되었다면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너희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자녀들을 위협 가운데 놔두지 않음을 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어 너희가 내 대적자로부터 멀어져 그로부터 도피하려는 올바른 길에 너희가 자녀로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피하려는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내 아버지의 손은 너희를 감싸고 너희를 안전하게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아직 나를 찾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한다. 너희는 진정한 평안을 알지를 못한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를 평안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의 공격을 내적으로 항상 아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항상 단지 너희 안에 불안과 참을성 없음과 흥분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는 너희를 자극하고 내몰아서 세상의 물결을 따르게 하여 내적인 평안을 찾을 수 없게 한다.

왜냐면 나와와 모든 접촉은 이를 막기 때문이고 내가 없이는 너희는 진정한 내적인 평안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내 주변에 모았고 그들이 나를 가장 깊은 혼의 위험 가운데 구원할 구원자로서 나를 깨닫게 해주었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명을 믿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를 통해 평안을 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았고 예수 안의 나를 고백하고서 내 구속사역을 첫 번째로 영접하고 의도적으로 이 길을 갔다. 그들은 첫 번째로 구속받은 자로서 육체의 죽음 후에 다시 그들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타락한 이후에 끝 없이 긴 싸움을 견딘 그들의 혼에 진실로 평안을 주었다. 이 싸움은 대적자에 대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이 나에게 의식적으로 향했고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를 통해 내가 그들 자신을 구속하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즉 나는 내 대적자에게 승리했다. 이제 나에게 향하려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내 대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는 평안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음 후에 저세상의 나라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평안을 얻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 그는 항상 다시 내 대적자에게 묶여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내 구속사역 즉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든 또는 저세상에서 든 그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고 나에 의해 자신이 구속되길 구하고 그를 축복되게 만들어 주는 내적인 평안을 구하며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때까지 내 대적자에 족쇄 가운데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이 땅의 세상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자와 대항해 싸워야만 하는 싸움의 영역이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항해 승리하고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나를 찾을 때까지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 평안이 너희 심장에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축복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록 너희가 아직 이 땅에서 살지라도 너희의 고향을 찾은 것이다. 너희는 나를 향한 올바른 길을 간 것이다. 너희는 나와 긴밀하게 연합이 되고 내 사랑의 힘을 받고 나와

함께 혼의 평안을 찾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속하게 된 것이고 한때 너희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자로부터 영원히 도피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을 올바르게 가게 된 것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고향의 문이 더 이상 닫혀 있지 않게 된다. 나 자신이 너희를 영접하고 모든 영원에서 영원까지 빛과 축복과 평안이 있는 내 나라로 너희를 인도한다.

아멘